

分析哲学과 心身同一論

曹 升 玉

(陸軍士官學校)

目 次

I. 緒 言	IV. 同一論(the Identity Theory)
II. 日常言語分析和 心理哲学	V. 同一論의 諸類型
1. 日常言語心理哲学	1. Smart型 同一論
2. 日常言語分析의 限界	2. Kim型 同一論
III. 메타理論과 心理哲学	3. Fodor型 同一論
1. 科学과 哲学의 提携	4. Rorty型 同一論
2. 科学的 唯物論과 物理主義 (Physicalism)	VI. 結 論

I. 緒 言

철학의 전통적인 문제들 가운데 心身問題(mind - body problem)만큼 分析哲学에서 활발히 그리고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 문제에는 難解한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데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철학자 개개인의 世界觀(Weltanschauung)이 近年 중에 그 논의를 가열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 그 논의가 꾸준한 이

1) 心身問題는 실로 해결될 수 없는 科学的, 認識論的, 言語的 문제들의 뭉치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이를 풀릴 수 없는 세계매듭(Weltknoten)이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 같다. 또한 이런 문제에는 目的論, 目的, 志向性, 自由意志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도 논쟁적인 주장들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Feigl 1958 : 372 - 373).

유는 새로운 科学的 発見과 分析方法이 제시될 때 마다 그 成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신문제야말로 바로 그 대표적인 試金石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Gilbert Ryle의 *The Concept of Mind* 가 나온 1949년 이후 근 30년 동안 특히 英·美分析哲學界에서 전개되어 온 심신문제에 관한 연구는 (1)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mind)과 몸(body) 간의 관계, (2) 사람의 몸, (3) 사람의 마음 등에 관한 서로 밀접히 관련된 세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ampbell 1970 : 1-2). 특히 (2)와 (3)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1)에 대한 해답이 결정되어 질 수 있음을 볼 때 최근 心身問題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心理哲學(Philosophy of mind 혹은 Philosophical psychology)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전통적으로 심신문제는 마음과 신체라는 두 事物(實體)들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行動主義心理學者들은 마음이 사물이나 실체가 아니라는 근거에서 심신문제를 두개의 독립된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물음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身體的 特性(Physical property)과 心理的 特性(mental property)들이 관계 맺고 있는 방식에 관한 물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느낌(raw feel)들은 行動的(또는 神經生理學的) 狀態들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라든지 혹은 “느낌言語(現象의 말씨들)가 행동(또는 신경생리학의)언어로 표현된 말씨들과 命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論理的 關係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바뀌게 되었다(Feigl 1958 : 372). 그래서 심신문제는 物心問題(the mental - physical problem 혹은 psycho - physical problem)로 불려지는 것이 더 낫다(Campbell 1970 : 5).

現代 心理哲學은 Ryle을 위시한 일상언어철학자들이 이룩한 成果와 다른 한편 現代科學, 그 중에서도 특히 神經生理學, 生物學, 컴퓨터科學分野에서 이룩한 화려한 업적에 도취된 物理主義의 產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 日常言語分析和 心理哲學

1. 日常言語心理哲學

현대 심리철학에 새로운 章을 연 라일은 일상언어철학을 心身理論에 적용하여 종래의 심신문제들은 일상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에서 나온 혼란에 불과하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p : 그녀는 눈물을 억수로 흘리며 집에 왔다.

q : 그녀는 고급 승용차로 집에 왔다.

이 두 命題들은 각각 그 자체로서는 아무 잘못이나 모순이 없다. 그렇지만 이 두 명제들을 일단 連言的으로 결합했을 때 즉 p,q는 무의미한 표현이 되어 버린다. “그녀는 눈물을 억수로 흘리며 고급 승용차로 집에왔다”는 말은 잘 알려진 英語의 농담이다. 이제 데카르트의 二元論(라일은 이 이론을 ‘機械 속의 유령의 도그마’라 부른다)도 이와 같다. 데카르트의 도그마는 “身體들과 동시에 精神들이 존재한다”거나 “신체적 過程(process)들과 동시에 심리적 과정들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적 과정들이 발생한다”는 말은 “신체적 과정들이 발생한다”는 말과 동일한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言明을 連言的 혹은 選言的으로 결합하는 것은 範疇誤謬(Category-mistake)를 범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Ryle 1949 : 22). 결국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이와 같은 언어 사용의 不注意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觀念論이나 唯物論은 “마음들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체들이 존재하지(두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두 진술을 選言的으로 결합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는 왼쪽과 오른쪽 장갑을 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쥬리의 장갑을 샀지(두가지를 동시에 사지는 않았다)”는 말과 같이 무의미한 표현이 되어 버린다(Ryle 1949 : 22-23).

이상과 같이,

마음에 관한 일상대화방식의 면밀한 분석은 혼란을 제거하고, 문제들을 해소시켜 버림으로써 二元論과 二元論의 반대 이론인 일원론, 그리고 여

러가지 일원론 가운데 관념론과 이의 반대 이론인 唯物論, 즉 心理哲學分野의 주요 生成物이 되어 온 상반되는 形而上學的 見解들을 모두 쓸데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Dennet 1978 : 249).

실재로 라일의 일상언어철학이 心理哲學에 끼친 영향은 The Concept of Mind가 나온지 10년 이상 동안 심신문제에 관한 理論 즉 主義(ism)들이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가 되어 버린 사실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겠다. 이제 理論構成은 보다 조심스럽고 겸손한 “概念的 分析”의 활동으로 내치되었다.

그러나 비록 라일의 접근방식이 한 “主義”를 解明하고 옹호하는 부담을 덜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 삼고 있는 假定들의 결백성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Ryle, Malcolm, Anscombe 등과 같은 일상언어철학자들이 암암리에 삼고 있는 前提는 “論理的 行動主義”이지만, 같은 일상 언어철학자 중에서도 Strawson 이나, Shaffer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전제에 반대하고 있다.²⁾ 이런 다양한 입장들은 일상언어철학자들이 그토록 거부 반응을 보였던 形而上學的 理論들과 같은 여러 敎說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과오를 스스로 범하고 마는 결과가 되었다.

2. 日常言語分析의 限界

라일은, “기억한다” “생각한다” “바란다” 등과 같은 心理的 술어들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非物理的 過程들을 이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단순한 신체적 운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는 온화한 형태의 行動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거나, 기억한다는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性向(disposition)일 뿐이라고 그는 본다. 그러나 비록 어떤 개념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따를 지라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개념들이 있다. 예를 들면 想像함과 같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性向을 나타내는 경향을 거의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心理狀態들이 있다.

(2) Strawson은 兩面理論(double-aspect theory)을 주장하고 있으며, Shaffer는 二元論을 주장하고 있다.

Smart는 이처럼 行動主義의 還元이 불가능한 心理的 현상들이 있음을 시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報告內容이 순전히 행동적 사실들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보고되고 오직 나만이 직접 접하는 “순수한 內的經驗”(pure inner experience)의 요소가 약간 있는 것 같다(Smart 1963 : 89).

따라서 행동주의를 전제삼고 있는 라일의理論은 행동주의적 構圖 속에 들어오지않는 心理狀態나 心理的 概念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논리적 행동주의는 檢証主義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他意識者의 문제”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직접 보거나 느낄 수 없고 오직 그들의 행동에 관한 觀察된 사실들만을 資料로 가질 뿐이다. 이때 他人의 行動은 그들의 마음을 입증하기 위한 귀납적 증거(evidence)이다. 그러나 행동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他意識者(other mind)들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들을 확증(confirm)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때 그런 타의식자들이 存在함을 검증할 독립된 검증 방법을 요구한다. 어떤 것이 x의 징후(symptom)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다른 것이 x의 基準(criterion)이 되어야 한다. 기준은 경험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의 논리적으로 충분한 標識(indicator)이 된다.

타의식자를 검증하는 증거가 오직 行動이고 징후적 근거는 기준적 증거에 논리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他意識者들에 관한 모든(有意味한) 주장들에 대한 순전히 행동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Dennet 1978 : 251)

그러나 고통과 같은 심리적 현상이 순전히 행동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주장은 그 사람의 行動이나 行動性向에 관한 명제와 논리적으로 同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內的인 生理的 事象들은 결코 한 사람의 행동이나 行動性向에 관한 命題와 논리적으로 동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生理學的의 진리는 징후적 의미 외에는 고통에 관한 주장의 진리에 적합하지 못하다. 만일 科學者들이 고통에 대한 생리학적 기준을 제안한다면, 그들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概念”을 제안하게 되고, 그런 종류의 고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통

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과학은 일상 개념을 수정하거나 개량할 수 없고 다만 일상언어 속에 제한된 用法的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概念的 保守主義는 논리적 행동주의로부터 나온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만일 심리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이, 그들이 마음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틀렸다; 마음의 연구는 (일상적인) 심리적 개념들에 관한 연구이고, 이런 심리적 개념들은 일상적 적용의 행동적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준들이 철학자들에게 의해서 설정되고 나면, 그들은 아무 할 일도 없게 된다”는 주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상언어분석의 방법을 지지하는 많은 추종자들까지도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Dennet 1978 : 251-252).

결국 일상언어심리철학의 핵심적 敎說이 되어온 論理的 行動主義, 檢証主義와 概念的 保守主義가 심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Dennet 1978 : 251).

Ⅲ. 메타理論과 心理哲学

1. 科学과 哲学的 提携

일상언어심리철학(ordinary language philosophy of mind)이 끼친 공적은 그 철학의 파괴적인 성격에 있다. 즉 마음에 관한 철학적 理論(ism)들을 구성한 전통적 방식을 파괴한 것이 그것이다.

전통적 이론가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경험적 근거도 없이 a priori 한 一般化를 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급한 일반화를 약간의 일상적인 경험에 관련시켜 살펴본 다음, 그들은 이를 形而上學的 眞理로 승격시켜 버린다. 그래서 만일 마음에 관한 이론들이 있으려면, 그 이론들은 옛날과 같이 연구실의 안락의자에 앉아서 명상이나 하는 方法에 의해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心理哲学者는 다음 세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즉, (1) 철학을 포기하고 심리학이나 頭腦科學 분야의 이론들을 탐구하거나, (2) 理論을 포기하고 순전히 言語的分析이라는 가장 조심스러운 解明과 混亂治療를 위해서 安住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 일종의 메

타理論家(meta-theorist)가 되어 有關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경험적理論들을 개념적으로 비판하여야 한다(Dennet 1978 : 250).

메타理論家로서의 심리철학자는 전통적 철학자들의 非經驗的 理論化와 일상언어철학자들의 分析方法과는 달리 心理学, 頭腦工学,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 및 人工言語의 과학 이론들과 자료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또한 科学哲學의 한 分科로 간주되고 있다(Dennet 1978 : 251).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며 反動的인 일상언어분석에 의한 心理哲學이 심신 이론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오류들과 혼란들을 진단하는데 모든 힘을 消盡했을 때, 그 철학의 약점들은 점점 더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다(Dennet 1978 : 250). 왜냐하면 심리철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言語分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음은 이미 쇼펜하우어의 “세계매듭”이 암시한 바요, 또한 일상언어철학은 事實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보다는 言語의 잘못된 用法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주된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³⁾

이제 일상언어로부터 사실어로 눈을 돌려 심신문제에는 철학적 요소 외에 과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파하여 새로운 科学哲學的 試圖가 대두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Feigl의 다음과 같은 고백은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現代科學의 歷史와 方法論을 [연구하는] 學徒로서, 그리고 최근 生物学, 生化学과 神經生理學에 감명을 받고서 생물학과 심리학에 대한 物理主義的 研究計劃(微視說明을 포함해서)의 성과를 나는 강력히 믿고 싶다. 그러나 분석철학도로서 나의 知的 良心은 환원가능성(설명가능성)의 문제들을 a priori한 方式으로 미리 判決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Feigl 1958 : 376).

3) Norman Malcolm (1970) "Moore and Ordinary Language," *The Linguistic Turn* ; ed by R. Rorty,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11-124.

2. 科学的 唯物論과 物理主義(Physicalism)

J. J. C. Smart는 현대 과학의 예상되는 成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학은 점점 더 우리에게 有機體들이 物理化學的 기계 장치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인간 자신의 행동마저도 언젠가는 力學의 用語들로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에 관한 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보다 복잡한 물리적 구조물들의 배열들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Smart 1962 : 161).

이처럼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唯物論的 世界觀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는 17세기 철학이 近代科學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던 것과 같다. 데카르트의 二元論이 확보한 것은 실은 物體界의 獨立性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현대 유물론을 과학적 유물론이라 하여 古典的 유물론과 구별하고 있는 Bernstein은 두 유물론 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고전적 유물론은, 物質은 운동하고 있는 궁극적 粒子들 즉 原子들도 구성되어 있다는 물질像이나 모델을 갖고 있었다. 움직이는 원자들에는 規則性이 있고 이 규칙성은 운동의 法則들에 의해서 表明된다. 현대 과학의 발전 초기에도 이런 像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비해서 과학적 유물론은 보다 세련된 唯物論이다. 과학적 유물론자들은 科學을 계속 발전하는 도정에 있는 과정(ongoing process)으로 보고 궁극적인 實體들(ultimate entities)과 과학의 법칙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과학에 의해서 용인된 기본적 실체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定義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과학이 할 일이다. 물질의 개념은 애매하다. 그 대신 物理的인 것에 관한 일반적이고 開放된 특성을 찾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만 결정된다(Bernstein 1968 : 202).

넓은 의미의 “物理的”이라는 낱말은, 間主觀的 관찰 근거를 갖고 있는 言語의 개념 안에서 記述될(그리고 아마도 說明 혹은 豫測) 될 수 있는 종류의 대상들이나 과정들로 定義될 수 있다. 이런 언어 혹은 개념적 體系는 --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 時間的·空間的·因果的 구조에 의해서 특징을 갖

게 된다(Feigl 1958 : 421).

과학적 기술과 설명을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종류의 實體나 過程을 새로운 科學的 唯物論者 즉 物理主義者가 받아들일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Feigl이 時間的·空間的·因果的 구조로 “物理的”이라는 말을 특징지우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 Feigl의 철학적 주장이 함의하는 바는 과학에 요구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참된, 實在的인(real)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Bernstein 1968 : 202).

IV. 同一論(the Identity Theory)

과학적 유물론을 전제로 삼고 있는 物理主義는 심리학과 人文科學을 포함한 모든 과학은 物理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만일 과학자들이 심리학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다면 심리학의 문제들은 물리학의 개념들과 이론적 장치들로 완전히 記述되고 說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Place는 心身同一論을 科學的 假說로 보았으며, Feigl은 物理主義의 方法에 의한 심신문제의 해결을 낙관하고 있으며, Smart는 감각의 발생까지도 物理學의 用語들로 설명된다고 하고 있다. 이리하여 물리주의는 “統一科學理論”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心理學的 記述과 物理學的 記述은 통일과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통일과학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록 心理學的의 기술들이 物理學的의 기술들과 그 성질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심리학의 기술들은 물리학의 기술들로 번역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심리학적 기술은 물리학적 번역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런 번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심리학적 기술에 대한 번역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同一論者인 Smart에게서 잘 나타나 있듯이, “감각 진술(sensation statement)들은 두뇌 과정에 관한 진술들로 번역될 수 없다” (Smart 1962 : 163).

그래서 번역관 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의 통일과학이론에 대한 두번째 옹호인 唯物論이 제시되고 있다고 Rosenthal은 말하고 있다.⁴⁾ 이제 (科學的) 唯物論에 따르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기술하는 것들은 물리적 事物들, 물리적 對象들 혹은 물리적 대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事態들과 事象(event)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思考, 知覺, 그리고 欲求들은 바로 그 사람의 신체가 갖고 있는 物理的 狀態들이거나 혹은 아마도 단지 그 사람의 두뇌나 중추신경계통의 상태나 사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물론에 관한 최근 철학적 저술들 속에서 널리 토의되어 오고있는 한 見解는 동일론(이후 “IT”로 약칭된다)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철학적 고려들도 미래의 과학 연구가 모든 심리적 상태와 사상은 일정한 물리적 상태나 사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늘날 유물론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IT의 어느 한 型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osenthal 1971 : Introduction 8-9).

동일론에 관한 이와 같은 생각은 Malcolm이나 Cornman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Malcolm은 동일론을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반대와 과학적 유물론에 대한 믿음에 動機지워져 있는 이론이라고 보며(Malcolm 1971 : 77-78), Cornman은 초기의 동일론을 유물론(환원적)이라 부른다(Cornman 1971 : 23-31).

동일론은, 心理的 事象들은 두뇌事象들에 단순히 平行하다거나 혹은 두뇌사상과 일치한다거나, 심리적 사상들이 두뇌사상들에 의해서 발생된다거나, 두뇌사상의 副産物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心理的 事象은 두뇌과정이다(두뇌과정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 4) 통일과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된 번역관 보다 唯物論이 훨씬 더 온화하다는 이유로 Rosenthal은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유물론은 번역관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逆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번역관은 유물론을 함의하나 그 역은 안된다. 따라서 유물론은 참일 수 있으나 번역관은 거짓일 수 있다. 둘째, 번역관은 유물론과는 달리 心理的 存在들에 관한 세부적 연구가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반면, 유물론은 오직 미래의 과학적 탐구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에 입각해서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상태들은 두뇌과정인가?”라는 질문이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대답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는 동일론의 位置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4- \emptyset 1대1 同時性對應(one-to-one simultaneity-correspondence)은 동일론의 필요조건이면서 동시에 並行論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비록 이 1대1 대응이 경험적으로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론과 병행론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Cornman 1962: 73-74). 왜냐하면 二元論과 一元論이 다 같이 사실과 모순이 없을 때 “節約의 原理”와 “單純性的 原理”는 일원론(頭腦過程理論)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을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Smart 1962: 172).

동일론의 철학적 意義는 바로 그것이 어떤 종류의 命題이건 간에 “감각은 두뇌과정과 동일하다”는 명제를 받아 들임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1) 概念的 混亂(범주오류)과 (2) 同一性의 논리적 구조 및 (3) 동일론자가 동일성을 밝힘에 있어서 사용하는 類比推理에 관한 문제들을 밝혀 보는 일이다.⁵⁾

V. 同一論의 諸類型⁶⁾

1. Smart型 同一論

Smart에 따르면,

“心像”(after-image)이나 “고통”이라는 낱말이 어떤 과정에 관한 보고

- 5) Dennet는 동일론의 난점을 (a)라이프니츠의 法則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 (b) 一般化에 관한 문제들 (c) 同一性 관계에 관한 추상적인 논리적 문제들을 들고 있다(Dennet 1978: 252). (1)의 문제는 (a)의 문제로 (2), (3)의 문제는 (c)의 문제에 대응시켜 질 수 있다.
- 6) Rosenthal은 現代的 唯物論의 여러 형태로 (1) 同一論 (2) 理論的 唯物論 (3) 機能的 唯物論 (4) 除去的 唯物論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Cornman은 (1)의 동일론을 “the identity theory”라 하고 이를 다시 환원적 유물론으로 보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Feigl과 Smart를 들고 있다. 그러나 Feigl은 자신의 동일론은 “存在論의 으로는” 관념론적 형이상학(idealistic metaphysics)의 형태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동일론을 환원적 유물론의 代表로 볼 수 없다(Feigl 1958: 474). 따라서 Smart型 同一論과 Feigl型 同一論을 구분해 보는 Bernstein의 견해에 따라 환원적 유물론자로 Smart를 든다.

인 한, 그것은 두뇌과정으로 밝혀진 과정에 관한 보고이다. 이런 定立(thesis)은 감각진술들이 두뇌과정들에 관한 진술들로 번역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따라 나온다. 또한 감각진술의 논리는 두뇌과정진술의 논리와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定立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직 감각진술이 어떤 것에 관한 보고인 한, 그 어떤 것은 실은 두뇌과정이다. 감각들은 두뇌과정에 불과하다(Smart 1962 : 163).

“感覺들은 두뇌과정들에 불과하다”(Sensations are nothing over and above brain processes)에서 “불과하다”는 “...이다” 혹은 “...과 동일하다”는 뜻의 엄밀한 동일성(strict identity)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Smart의 주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言語的 表現들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심신 문제에 관한 言語的 解決策(linguistic approach)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오직 언어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心像”이나 “고통”이라는 표현들이 지시하는 것은 단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非言語的 現像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에 관한 사실들로부터 非言語的 實在들로 추론해 갈 수 있다.

둘째, 심리적 표현들과 물리적 표현들 간의 의미가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前者가 後者로 分析되거나 번역될 수 없다. 두 표현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 상이한 말씨(terms)들이 동일한 指示對象을 가졌을 뿐, 동일한 意味들을 가진 것은 아니다.

셋째, 심리적 말씨들과 물리적 말씨들이 각기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한 對象에 대해서 상이한 진술이 가능한 二重言語理論(double language theory)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두 말씨들의 지시 대상은 동일하다. 감각말씨들은 일정한 두뇌과정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二重言語理論을 택한 이유는,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分子運動에 관해서 그것이 빠르다, 느리다, 직선적이다, 원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意味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노란 것을 보고 있는 경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Smart 1962 : 168).

는 反論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언어적 난관을 회피하기 위해 Shaffer는 동일론을 心像의 所持(having), 고통의 느낌, 생각의 떠오름과 같은 심리적 事象은 두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정한 事象과 동일하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해석하고, 이처럼 심리사상과 물리사상이 동일하다면 여기에 Smart의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Shaffer 1963 : 68). 왜냐하면 만일 두 사상들 간의 동일성이 경험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두 사상들을 각각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야 할 터인 즉,

內視(introspection)에 입각해서 내가 아는 발생한 事象은 신경학적 관찰에 의해서 당신이 아는 발생한 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동일한 한 事象(두뇌과정)이 물리적 특성(property)과 동시에 비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haffer 1963 : 72).

그래서 “비록 우리가 非物理的인 事象들을 物理的인 事象들과 다른 종류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적어도 비물리적인 속성들이나 특성들의 存在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Shaffer 1963 : 69).

동일론이 물리주의적 구도(physicalistic framework) 속에서 성립되려면 적어도 이런 구도를 벗어나 있는 心理的 屬性이나 特性들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유물론자가 해야 할 일은 事象一般의 성질과 특성 또는 속성의 성격을 밝히는 일이다.

2. Kim型 同一論

동일론은 “고통은 두뇌상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고통 받고 있다(t시각에)와 “소크라테스가 두뇌상태 B에 있다(t시각에)”라는 두 진술들이 동일한 事象 혹은 狀態를 기술 혹은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Kim 1966 : 87-88) 두 진술들이 동일한 사상이나 상태를 기술한다는 주장^기. “진술 A가 事象 a를 기술하고 진술 B가 사상 b를 기술하며, a와 b는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어떤 單稱陳述(singular statement)이 기술 또

□ 卍升玉

는 지시하는 개개의 사태는 무엇인가?”와 “어떤 조건 밑에서 사상들의 동일성이 성립하는가?”라는 두 문제를 Kim은 提示하고 있다.

“事象이나 狀態라는 것은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 個別者(particular)로 설명되거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개별자들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a's being F,” “b's being G,” “a standing in relation R to b”는 사태를 가르키는 표현들이다. 이제 'a'와 'b'는 개별자를 지시하고 'F', 'G', 'R'은 특성과 관계를 나타낸다(Kim 1966 : 88).

이러한 事象의 개념 아래서 사상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당연히 생각된다. 즉, 사상 a's being F와 사상 b's being G는, “a is F”와 “b is G”의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同値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자 a가 개별자 b와 동일함과 동시에 being F(F-ness)의 특성이 being G(G-ness)의 특성과 동일할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동일한 사상이다”(Kim 1966 : 89)

논리적 同値性은 동일론이 채택할 동일성의 기준으로는 너무 완강하고, 그렇다고 同內包性이 동일성의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보고, Kim은 논리적 동치성과 동내포성의 중간 지대에서 동일성의 기준을 찾으려 한다(Kim 1966 : 90).

논리적 동치성이 동일성의 기준에서 제외될 때 心理事象 a's being M 과 物理事象 b's being P의 事實的 同一化는 (1) 특성 M과 P의 동일화와 (2) 個別者 a와 b의 동일화를 내포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론이 심리-사상과 물리 사상을 동일시함에 있어서 두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個別者들의 동일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고통 받고 있음과 소크라테스의 두뇌사상 B에 있음’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는 ‘고통 받고 있음의 특성과 두뇌상태 B에 있음의 특성이 동일한 특성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로 환원된다(Kim 1966 : 89). 만일 ‘고통 받고 있음의 특성’이 ‘두뇌상태 B에 있음의 특성’과 동일하지 않다면, ‘소크라테스의 고통 받고 있음’과 ‘소크라테스의 두뇌상태 B에 있음’은 서로 다른 事象들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前

者は 심리사상이고 후자는 전자에 상관된 물리사상이며 이 두개는 서로 다른 것이 된다. 이것은 분명히 동일론에 모순 된다.

동일론에 반대하는 者들은 (a) (1)과 (2)를 다 부정하는 사람과 (b) (1)은 부정하되 (2)는 인정하려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前者에 속하는 철학자들을 “데카르트主義者들”이라 부르며, 이들은 동일론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나타낸다(Kim 1966 : 94).⁷⁾ 그렇지만 데카르트主義의 극단적 二元論이 동일론에 대한 유일한 代案은 아니다. 두 사상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자들의 동일성을 받아 들이되 특성들의 동일성을 받아 들이지 않을 때 일종의 二元論的 唯物論이 나온다. 이원적 유물론은 오직 時間·空間的으로 위치시켜 질 수 있는 개별자들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유물론적이고, 心理事象들은 物理事象들의 体系와는 다른 事象의 体系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二元論이다. 이런 이론을 넘어서 동일론이 달성한 것은 오직 特性들의 환원에 있을 뿐이다.

특성들의 환원을 위해서 Kim은 溫度—에너지 경우와 고통—두뇌상태 B의 경우를 類比시키는 일이다(Kim 1966 : 86-87). 기체와 같은 물리적 사물이 온도를 갖고 있고 온도 그 자체는 사물이 아니다. 온도를 갖고 있는 물리적 사물은 分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자들은 일정한 平均運動 에너지의 값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분자들의 이런 특성과 물리적 사물의 온도 특성 간에는 일정한 相關關係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사물이 아니고 살아 있는 유기체의 특성이다. 이런 生物學的 有機體는 두뇌와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고통 받고 있음의 특성과 어떤 종류의 두뇌상태에 있음의 특성이라는 두 특성들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Kim 1966 : 87) .

그런데 統一科學理論은 微視還元(micro-reduction)을 반복함으로써 성취되지만, 한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미시환원하는 것이 반드시 巨視特性(macro-property)들과 미시특성들을 동일시킨다는 의미에서 특성들의

7) 데카르트主義者들이 동일론을 극단적으로 반대한다기 보다는 오히려(실은) 동일론자들이 데카르트主義를 반대하고 있으며, 동일론의 이런 태도는 Ryle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환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Kim은 주시하고 있다(Kim 1966 : 87). 그래서 그는 “科学的 單純性 論證”(arguments from scientific simplicity)을 회피하고 “存在論的 單純性 論證”(arguments from ontological simplicity)을 통해서 오직 한 体系의 특성 또는 事象만을 채택하고 있다(Kim 1966 : 80).

3. Fodor 型 同一論

내가 어떤 시각에 사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동일론자는, 나의 思考가 그 시각에 내 두뇌과정 P (F, G, H, ...와 같은 물리적 특성으로 定義되는)와 동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사과에 관한 모든 사고는 F, G, H, ...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 두뇌과정이라고 일반화하기 쉽다. 그렇지만 사과에 관한 인간의 모든 사고 또는 사과에 관한 나의 모든 사고가 순전히 물리적 특성들로 나타내지는 종류의 두뇌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思考나 사과에 관한 思考의 일반적 특징은 물리적 특징이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동일론자는 각각의 특정한 心理的 事象(徵標)이 일정한 두뇌사상(brain event)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徵標”(token) 동일론과 “類型”(type) 동일론을 구분하고 후자를 심리철학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오늘날 누구도 心理現象들의 유형들이 순전히 물리적 특성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物理主義에 합당한 목표라고 가정하는 사람도 없다(Dennet 1978 : 253-254).

그래서 징표동일론의 주장을 넘어서 심리현상들의 유형에 대해서 추구되고 있는 뚜렷한 특징들은 수행된 機能的 役割들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강한 주장이 나온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심리상태들은 기능적 상태들이다.” 즉,

예를 들면 특수한 믿음이나 고통이 특수한 기능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의 구성 要素, 化学成分, 모양, 혹은 다른 物理的 特性에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同值的인 체계 속에서 동일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것은 동일한 믿음, 혹은 고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음 혹은 이런 고통일 수 없을 것이다(Dennet 1978 : 254).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캠軸(Camshaft)은 밸브 開閉器이고 이 밸브 開閉器(밸브를 열기 위한 이 특수한 기계 장치)는 캠軸에 “不過하다”(nothing but). 그러나 內燃機閥들의 작동에 관한 기계적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밸브 開閉器의 개념을 캠軸의 개념으로 대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前者를 後者로 환원하려 하지 않는다.

기계적 설명은 밸브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캠軸이 밸브를 들어 올릴 때 어떤 기계적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이와 같은 方式으로 아마도 神經學的 理論들은 충동(drive)이 억제되고, 동기가 부여되고, 대상들이 지각될 때 어떤 生化學的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Fodor 1968 : 145). 그래서 충동, 동기가 아마도 神經學的 기계 장치의 기능적 측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충동, 동기가 神經學的 體系로 미시 분석된다는 것은 含意하지 않는다. 마치 밸브 개폐기가 캠軸으로 미시 분석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내가 만일 자동차의 한 부속품을 “캠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암암리에 그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물건을 “밸브 開閉器”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것을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 “밸브 개폐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Fodor 1968 : 144-145).

이와 같이 心理學的 대상(예를 들면 감각)은 신경 세포들 혹은 신경 세포들의 물리적 상태들과 같은 어떤 것으로 환원적 분석이 될 수 없고, 오직 前者가 後者로 기능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心身同一性 진술들은 기능적 분석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Fodor 1968 : 146).

가령 500밀리秒 동안에 나의 現象的 圓의 중심에서 5° 부분이 그 어떤 특성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反面, 物理的 두뇌 상태의 어떤 부분의 특성도 500밀리秒 동안 변화하지 않도록 그 두뇌 상태가 쪼개질 수 없기 때

□ 曹升玉

문에, 한 유기체가 神經狀態의 변화를 받으면서도 일정한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Fodor 1968 : 147). 만일 유물론이 이를 부정하는 식으로 해석된다면, 唯物論은 확실히 경험적으로 (contingently) 그릇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物理化學的 頭腦狀態라는 뜻에서 두뇌상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종류의 상태이다.” Putnam은 “고통 혹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는 有機體의 기능적 상태이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Putnam 1967 : 154).

4. Rorty型 同一論⁸⁾

동일론이 동일성의 논리를 확보하려면, 同一律의 적용을 받아 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주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범주오류를 피하기 위한 Smart의 企圖는 Shaffer, Cornman, Rorty에 의해서 그 허위성이 폭로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이제 동일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心理的 特性

8) Bernstein이 세가지 型의 同一論으로 Feigl型, Smart型, Feyerabend-Rorty형을 들고 있는 데서 암시를 받아 제거적 유물론을 Rorty型 동일론으로 보았다.

9) Smart는, “나는 노란 오렌지 心像을 보고 있다”는 심리적 문장은 “내가 눈을 뜨고, 깨어 있고, 그리고 조명을 잘 받고 있는 하나의 오렌지가 내 앞에 있을 때, 즉 내가 실제로 한 오렌지를 보고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話題中立的(topic neutral) 문장으로 번역된다고 보았다(Smart 1962 : 167).

Shaffer는 Smart의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것”은 실은 非物理的(心理的) 特性을 갖고 있다고 하여 Smart의 번역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Shaffer 1963 : 69 - 70).

Cornman에 따르면 原文章(“나는 노란 오렌지 心像을 본다”)을 P₁, 번역문장(“...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다”)을 M이라 할 때 M은 含意하지만 P₁을 함의하지 않는 문장 P₂(“나는 동그스름한 모양을 한 것을 본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P₁과 M간의 번역은 실패했다고 본다(Cornman 1962 : 76).

Rorty는 Smart의 이론은 제안된 번역의 집합성 여부에 관한 또 하나의 논쟁을 낳게 한다고 말한다(Rorty 1965 : 178).

들이 物理的 特性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각은 두뇌 과정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동일하다”는 개념은 “熱素流의 量” (quantity of caloric fluid) 과 “分子의 평균운동에너지”간에 성립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Rorty는 보고 있다. 이 때 “‘熱素流의 量’ 이라고 부르던 것은 오늘날 분자의 평균운동에너지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분명한 ‘同一性’ 의 의미가 있다” (Rorty 1965 : 176).

이 이론에 따르면 “x에 대해서 의미있게 서술될 모든 屬性들이 y에 대해서 의미있게 서술된다”는 문장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科學的 研究結果들을 “交錯範疇同一性” (Cross - Category identity) 으로 표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우스의 호령은 정전기의 放電이다.” “귀신에 홀린 것은 일종의 정신착란병(혹은 환상)이다”는 진술 속의 “이다”는 엄밀한 동일성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진술은,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 것’ 이라고 부르던 것은 일종의 정신착란병이다”라는 진술이 생략되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람들이 부르는 ‘X’가 “X”와 동일한 범주(Ryle 式의) 속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X”를 사용하고 있는 진술을 Smart 처럼 話題中立의 진술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감각은 두뇌과정과 동일하다”는 진술은 “사람이 지금 ‘感覺’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한 두뇌과정과 동일하다”는 진술로 分析됨으로서 제거형 동일론은 범주오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면서도 傳統的 唯物論이 갖는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번역형 이론의 약점으로 인하여 Rorty는 제거적 동일론(disappearance from of the Identity Theory)을 제안하고 있다(Rorty 1965 : 177 - 178).

“사람들이 ‘魔女’라 부르던 것은 다름 아닌 정신병에 걸린 부인이다” 고 말할 때 통상 우리는 “어떤 마녀도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곧 바로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각’ 이라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닌 두뇌과정이다” 고 말할 때, 우리가 곧 “감각 같은 것은 결코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게 보인다는 점에 除去的 理論의 치명적 약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어떤 原始人種은, 병은 귀신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

종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귀신 같은 것은 결코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의해서 생기며, 무당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실은 다만 환상을 보았을 뿐이다”고 덧붙일 것이다. 이제 同一論者는, “감각이 미래의 심리-생리학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귀신이 현대 과학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같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미래의 과학은 감각의 存在를 부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픔을 느낀다고 말할 때 내가 보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상되는 미래 과학의 다음과 같은 답변속에 시사되고 있다.

“당신은 어떤 두뇌과정의 발생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장차 당신이 ‘나는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나의 ‘C- 신경줄이 흥분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보다 더 단순해 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한 귀신을 [보았다]고 보고했을 때, 내가 보고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무당의 질문에 “당신은 당신의 幻想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장차 당신의 경험들을 그런 말들로 기술한다면 생활이 보다 간편해 질 것이다...”(Rorty 1965 : 179 - 180).

만일 동일론자가 “감각” “심상” “아픔”과 같은 낱말들이 멀지 않아 우리의 어휘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者로 간주된다면, 그 동일론자는 분명히 옳지 못하다(Rorty 1965 : 185). 다만 “사람들이 ‘마녀’라 부르던 것은 정신병에 걸린 부인이다”와 “사람들이 ‘감각’이라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닌 두뇌과정이다”의 두 진술로부터 “귀신”이나 “감각”을 언급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부터 제거하더라도 우리의 說明하고 記述하는 능력이 결코 줄지 않는다(Rorty 1965 : 180 - 181). “귀신”이나 “감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우리의 言語生活이 불편할 뿐이다. 그러나 경험적 발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言語도(따라서 言語生活)도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VI. 結 論

Smart의 동일론(환원적 유물론), Kim의 이론적 유물론, Fodor의 기능적 유물론, Rorty의 제거적 유물론은 네가지 유형의 同一論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Rosenthal은 이들 이론들을 단순한 동일론의 네가지 유형으로 본데 그치지 않고, 이들 이론들은 동일론을 옹호함에 있어서 전개된 네 단계로 본 듯하다. 그래서 뒤에 오는 이론은 앞 理論이 갖고 있는 결점을 補充함으로써 동일론은 발전해 왔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제거형 동일론이 그 이전의 이론에 제기된 모든 난점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Rorty의 이론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마도 “귀신”이나 “감각”이라는 어휘를 우리의 언어로부터 제거하더라도 “우리의 설명하고 기술하는 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 속에 들어있는 “기술”(to describe)의 개념인 것 같다. “기술”의 개념에 대한 Rorty의 생각은 틀렸거나, 쓸데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우 애매하다(Bernstein 1968 : 214).

(1) 우리는 우리의 감각, 느낌, 기분 등을 기술하기 위해 매우 풍부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감각들과 느낌들에 관해서 기술하고 보고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으로 새로운 神經生理學에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비록 과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기술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만일 내가 새로운 신경생리학의 언어를 채택한다면 나의 언어표현능력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이상적 언어도 이를 代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Bernstein 1968 : 215).

(2) Wittgenstein과 최근 分析哲學者들 뿐만 아니라 現象學의 分析은 올바른 기술들의 典型들이라고 간주되는 여러 종류의 기술들과 여러가지 다른 유형의 진술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특정한 목적, 예를 들면 과학적 기술과 예측을 위해서 어떤 유형의 정당한 記述들을 무시할 수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後者와 같은 유형의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不當하다고 밝히기에는 불충분하다(Bernstein 1968 : 216).

(3) “기술하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Rorty의 주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의 記述的 表現들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술 능력이 줄었는지 줄지 않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메타言語와 메타理論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메타理論의 규칙들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반대로 한 형식의 말이 다른 형식의 言語보다 더 나은 기능이나 목적에 그 이상 기여하지 못할 때 前者가 사라진다고 Rorty는 말할 것이다. 이런 代置가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술 능력이 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하지 못하게 되었다”(Bernstein 1968: 219)

대부분의 현대 분석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論理實証主義와 論理的 原子論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철학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본적 편견에 의존하고 있다(Bernstein 1968 : 221). 그 첫째는 “唯名論”이요 다른 하나는 과학적 설명과 기술의 典型에 대한 믿음이다. 唯名論은, 근본적으로 實在的인 것들은 우리의 개념적 구도의 기본적 표현들의 實在的(real) 지시 대상을 우리가 발견할 때 假定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信念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기본 어휘가 지시하는 “實在的” 궁극적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두번째 편견은, 모든 것이 言表되고 수행될 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과학이고 또 오직 과학 뿐이라는 신념과 과학적 설명과 기술의 전형(paradigm)에 同化될 수 없는 것은 모두 이차적 地位 밖에 갖지 못한다는 신념이다.

이런 철학적 편견들의 부당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의심하고 폭로한 사람이 바로 Wittgenstein이다. 그는 여러가지 다양하고, 복잡하며 還元될 수 없는 觀點들과 言語들 및 生活形式(form of life)들과 인간 생활과 언어의 복잡한 그물(web)에 단 하나의 典型이나 標準을 부과하려고 하는 충동에 빠지는 위험을 경고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大陵의 現象學者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밝혀 주었던 것과 의미 깊은 家族類似性(family resemblance)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한 還元的인 科學의 틀(mold)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려 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經驗과 言語의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紛糾 속에서 다시 살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REFERENCES

Bernstein, Richard J. (1968) "The Challenge of Scientific Materialism," *International Philosophical Quarterly*, VIII, 2, 252-275.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1971) ed. by David M. Rosenthal,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200-222.

Campbell, Keith (1970) *Body and Mind*,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Chappell, V. C. ed. (1962) *The Philosophy of Min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Cornman, J. W. (1971) *Materialism and Sensation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Dennet, D. C. (1978) "Current Issues in the Philosophy of Mind,"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5, 249-261.

Feigl, Herbert (1958) "The 'Mental' and the 'Physical'," in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2, ed. by Herbert Feigl, Michael Scriven and Grover Maxwell, Minneapolis : Minnesota University Press.

Fodor, Jerry A. (1968) "Materialism" in *Psychological Explanation*, Random House, Inc., 90-120.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1971) ed. by David M. Rosenthal,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28-149.

Katz, Bernard D. (1978) "Kim on Events,"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 VII, No. 3, 427-441.

Kim, Jaegwon (1966) "On the 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III, 3, 227-235.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1971) ed. by David M. Rosenthal,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80-95.

Malcolm, Norman (1971) *Problems of Mind: Descartes to Wittgenste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utnam, Hilary (1967) "The Nature of Mental States," in *Art, Mind, and Religion*, ed. by W. H. Capitan and D. D. Merrill, Pittsburg: University of Pittsburg Press, 37-48.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1971) ed. by David M. Rosenthal,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50-161.

Ryle, Gilbert (1949)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Barnes & Noble.

Rorty, Richard (1965) "Mind-Body Identity, Privacy, and Categories," *The Review of Metaphysics*, XIX, 1, 24-59.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1971) ed. by David M. Rosenthal,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74-199.

Rosenthal, David M, ed. (1971)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Shaffer, Jerome (1963) "Mental Events and the Brain," *The Journal of Philosophy*, LX, 6, 160-166. Reprinted in *Materialism and the Mind-Body Problem* (1971) ed. by David M. Rosenthal,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67-72.

Shaffer, Jerome (1968) *Philosophy of Min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Smart, J. J. C. (1962) "Sensations and Brain Processes", *The Philosophy of Mind* (1962) ed. by V. C. Chappell,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60-172

Smart, J. J. C. (1963) *Philosophy and Scientific Realism*, New York: The Humanities Press.

Strawson, P. F. (1958) "Persons", reprinted in *Essays in Philosophical Psychology* (1964) ed. by Donald F. Gustafson, London: Macmillan, 377-403.

Williams, Stephen (1978) "Pains, Brain States and Scientific Identities", *Mind*, No. 345, 77-92.